

금융상식

POCKET BOOK



금융업권별 금융상식 수록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 용어풀이 등

동 Pocket Book은 금융기관 공동으로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I. 은행	1
1. 금융과 은행	2
가. 은행과 금융시장	2
나. 은행의 주요업무	3
2. 은행사례별 Q&A	4
가. 은행	4
나. 저축은행	13
II. 금융투자	15
1. 금융투자란?	16
가. 금융투자의 이해	16
나. 금융투자상품이란?	17
다. 금융투자가 필요한 이유	17
2. 금융투자 사례별 Q&A	18
가. 계좌개설 관련	18
나.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 및 참고사항	21
다. 대표적 금융투자 분쟁관련	25
III. 보험	27
1. 보험이란	28
가. 보험이란?	28
나.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8
다. 보험상품 가입 시 살펴야 할 사항은 ?	29

차 례



2. 보험사례별 Q&A	30
가. 보험가입·유지·관리 관련	30
나. 보험 보상 관련	36
다. 기타	39
 IV. 신용카드	40
1. 신용카드란	41
가. 신용이란?	41
나. 신용카드란?	41
다.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43
2. 신용카드 사례별 Q&A	44
가. 신용카드 발급 관련	44
나. 신용카드 이용 관련	46
다.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제도	49
 V. 금융용어 풀이(은행·금융투자·보험·신용카드)	51
 VI. 기타	60

I

은행

1. 금융과 은행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은행의 주요업무

2. 은행 사례별 Q&A

가.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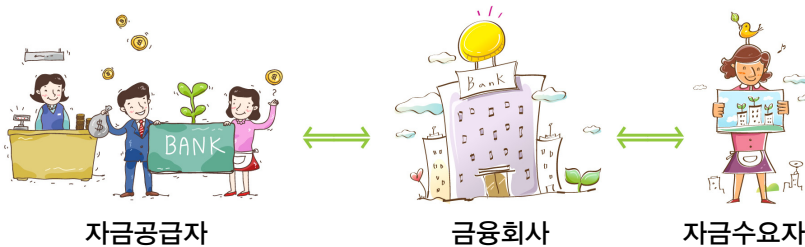
나. 저축은행



1 금융과 은행

가 은행과 금융시장

- ▶ 금융 시장이란 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듯이 금융 시장은 돈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 ▶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돈이라는 상품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 ▶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금융회사’가 필요하며, 가장 대표적인 금융회사로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종류

은 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비은행 예금 취 급 기 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예금
보 험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금 용 투 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사
여 신 전 문	신용카드회사, 리스·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기 타	자산 운용 회사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

나 은행의 주요업무

- ▶ 사람들은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 여유자금을 저축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 ▶ 이와 같은 저축과 대출은 은행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 '수신'과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 이외에도 은행은 송금, 환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은행의 주요 업무

수	신	저축의 목적, 기간, 금액에 따라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판매
여	신	신용 또는 담보를 평가하여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
송	금	은행 창구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국내 혹은 해외로 자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이체
환	전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 즉 국내화폐와 외국화폐 간 교환
세금·공과금 납	부	자동차세, 재산세, 전기·수도 요금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금	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은행 지점 내 금고 대여



가 은행

(1) 수신 관련 거래

Q

1. 원금 보장 상품

최근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했다가 최근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원금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었네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 은행에서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도 판매합니다.
- ▶ 원금보장이 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MMDA, 원금보전형 연금신탁 등과는 달리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저축성보험 등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Q

2. 예금자 보호 상품

은행에서 판매되는 수신상품중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 예금자 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 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표지어음, 정기적금, 상호부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 [비보호 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실적배당형 신탁 등

Q

3.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조회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최근 5년(휴면보험금은 3년)이상 아무런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 ▶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한 후 휴면예금계좌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상속인은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 등 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상거래채무정보 등

Q A

5. 수표 분실 신고 방법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① 은행 및 경찰서에 분실 신고

- ▶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경찰서를 각각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우선 전화로 신고한 후 다음날 까지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정식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법원에 분실 신고

- ▶ 은행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5일 이내 법원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법원판결 후 돈 회수

- ▶ 1~3개월 후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수표주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통상 판결 일로부터 1개월(판결불복기한) 경과 후 은행이 돈을 지급합니다.



(2) 여신 관련 거래

Q

6. 대출 종류

아이가 갑작스레 수술을 하게 되어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일반(신용)대출의 차이점을 몰라 결정이 어렵습니다. 위 두 대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요구불예금 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일반(신용)대출 비교]

구분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일반(신용)대출
장점	-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마이너스통장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
단점	-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이자 발생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 ▶ 사용한 금액만큼만 이자를 부담하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매번 대출을 받기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편리한 반면 일반적으로 적용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 ▶ 따라서, 고객별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금리, 자금상환 계획, 거래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7. 주택연금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노후준비에 고민이 많은 은퇴자입니다. 최근 뉴스에 노후대비 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가입조건이랑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인 국민들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지급액은 연령이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 집니다.

※ 월지급금 예시('16.2월 기준, 종신지급 방식·정액형)

(단위 : 만원)

주택가격	1억	3억	5억	7억	9억
60세	22	68	113	159	204
65세	26	80	134	188	242
70세	32	97	162	226	286
75세	39	118	197	276	307
80세	48	146	244	340	340

- ▶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수령액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 ▶ 고객별로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 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www.hf.go.kr, 1688-8114

Q

8.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방안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주변에서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 졌다고 하던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와 변경된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A

▶ 고객의 장기이자부담 및 향후 일시에 원금상환하는 부담을 줄이고, 본인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은 '16.2월부터, 비수도권은 '16.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유도
-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하여 대출한도 산정
- ④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 관리에 활용

▶ 다만, 집단대출, 소액대출, 상환계획이 명확한 경우 등 다양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영업점·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셀프상담코너」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의 팝업 링크, 쿼메뉴, 배너 및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스마트폰 포함)

Q

9. 대출거절 시 대처방안

얼마 전 예상치 못하게 대출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대출거절 시에는 금융기관 대상으로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10. 금리인하 요구권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보다 연봉은 상승했으며 직급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이직 전 받았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A

- ▶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기간 중에도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직,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 ▶ 단, 은행별로 약관, 내규 등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11.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A

- ▶ 대출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금리 수준만 보고 결정하기 보다는 대출 상환 기관, 금리 변동 방향성 예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대출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고정금리	- 안정적인 미래 설계 가능 -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보다 유리	- 통상 초기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음 - 금리 하락기에 변동금리보다 불리
변동금리	- 통상 초기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음 - 금리 하락기에 고정금리보다 유리	- 금리가 불확정적이므로 안정적인 생활 설계에 지장 우려 -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보다 불리



(3) 송금 등 기타 거래

Q

12. 편리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방법

3년전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주거은행을 대출금이 있는 은행으로 바꾸고 싶은데 다른 은행에 설정해 놓은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가 걸립니다. 편리하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웹사이트(www.payinfo.or.kr), 전국 은행지점,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문사, 학원 등 일부 자동납부 출금정보는 '16.6월부터 조회해지·변경가능하며,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에는 동 서비스 이용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Q

13. 다른 사람계좌에 잘못 송금

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송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 우선, 본인의 거래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착오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거래은행 또는 타 은행은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하여 입금토록 조치합니다.
- ▶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하여 쓸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저축은행

(1) 수신 관련 거래

Q

14. 예금자 보호제도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가요?

A

- ▶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이며,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거의 모든 예금 상품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 다만 후순위예금 등 일부 미보장 상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가입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5. 대리인에 의한 예금거래

본인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예금거래 계약이 가능한가요?

A

- ▶ 본인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리인에 의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구 분	확인사항
가족방문 시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대리인방문 시	도장(거래인감)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도장(거래인감)

(2) 여신 관련 거래

Q

16. 정책금융 상품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 ▶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연간 근로(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10일 이상 근로를 하고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미신고자”에 대한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원본)를 제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 대출한도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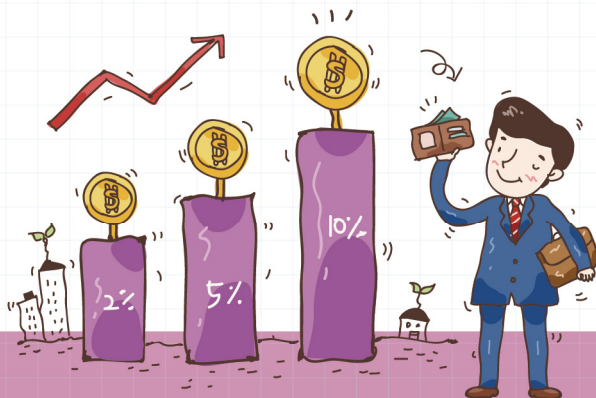
금융투자

1. 금융투자란?

- 가. 금융투자의 이해
- 나. 금융투자상품이란?
- 다. 금융투자가 필요한 이유

2. 금융투자 사례별 Q&A

- 가. 계좌개설 관련
- 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 및 참고사항
- 다. 대표적 금융투자 분쟁관련



1 금융투자란?

가 금융투자의 이해

- ▶ 보통 '투자'라는 말은 그 대상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사업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이들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금융투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투자성이 내포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저축 vs. 투자

구 분	저축	투자
대표적 금융상품	예금/적금	주식/채권/펀드
원금보장여부 및 미래이익 규모	원금보장 고정(이자고정)	원금손실 가능 (예금대비)초과수익 가능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점	예금을 하는 경우 은행의 안정성(건전성)이 중요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인 기업의 안정성(수익, 성장)이 중요

※ 투자 vs. 투기

- (투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투자대상을 선택
- (투기) 정보 및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것

▶ 수익과 리스크와의 관계



- ▶ 투자에서 기대수익과 투자리스크(risk)과의 관계는 고위험·고수익 (high-risk high-return) 원칙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금융투자상품이란?

-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품입니다.

* 펀드는 예금이 아니며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펀드자산은 운용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신탁업자에게 별도 보관됨.

※ 주요 금융투자상품 : 주식, 채권, 펀드(주식형/채권형/MMF 등), 파생상품(선물/옵션), 파생결합증권(ELS/DLS), Wrap Account, 신탁, RP.

- ▶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특성
 - 시중금리이상의 초과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투자결과는 본인책임이 원칙입니다.
 -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 금융투자가 필요한 이유

- ▶ 우리나라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시대를 본격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데 예금 이자수익만으로는 자산운용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각자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자산 설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생애 자산설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불확실(리스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에서 일정한 수익(예금금리+α)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

금융투자 사례별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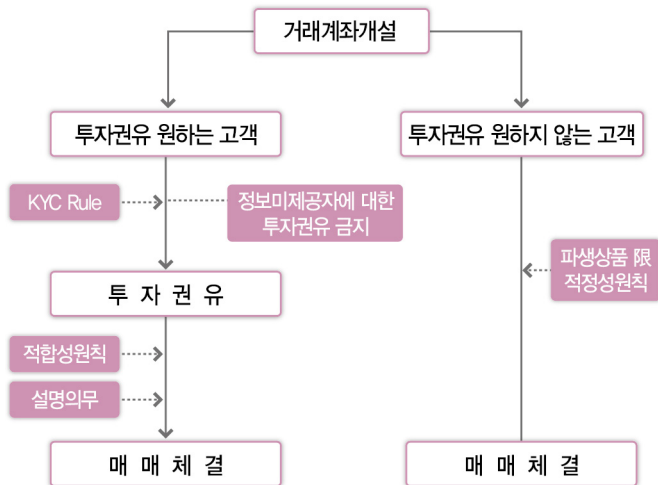
가 계좌개설 관련

Q
A

1. 가입절차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수를 위한 증권회사 등에서의 계좌개설 시 전반적인 절차는?

- ▶ 아래와 같이 투자권유를 원하는 고객과 원하지 않는 고객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KYC Rule*,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KYC(Know-your-customer) Rule: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경험·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

Q

2. 투자자 성향 파악 절차 시간 과다소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회사 등에 가면 서류작성이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를 꼭해야 하는 지?

A

- ▶ 2009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KYC Rule,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 계좌개설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KYC Rule)하여 그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일정 시간(약30~40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입 초기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Q

3. 투자자 성향별 금융투자상품 분류

금융투자상품별 위험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투자자 성향에 매칭되는 금융투자상품 분류를 보여줄 수 있나요?

A

- ▶ 다음 표(예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과 투자자성향을 각각 매칭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정형성향 투자자에게는 초저위험형상품만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성향 보다 높은 위험상품에 투자를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부적합 확인서’ 작성 등)가 필요합니다.

※ 투자자 성향별 금융투자상품 분류

상품위험 등 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 증권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포함), 파생상품펀드,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원금손실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해외투자 채권펀드	원금보전 추구형 파생상품 투자펀드, 채권형펀드	MMF
채권		회사채 BB+이하	회사채 BBB- ~ BBB0	회사채 BBB+ ~ A0	금융채, 회사채A+ 이상	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보증채, RP
CP (전단채)		B+ 이하	A3-	A30 ~ A3+	A2- 이상	-
주식		신용거래, 해외주식	주식	-	-	-
선물옵션		선물옵션	-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 보장형	원금보장형	-
	ELW	ELW	-			
장외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			

* 증권회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 및 참고사항

Q

4.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의점

예금과 달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데,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시 유의할 점은?

A

- ▶ 투자성향, 목적, 경험 등을 금융회사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 ▶ 투자권유를 받을 때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특정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므로 투자결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예상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 ▶ 시중금리보다 월등한 수익률인 상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려깊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 ▶ 특히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 계좌관련 정보(HTS ID, 비밀번호 등) 및 증권카드 관리에 주의하고(본인이 직접 관리), 거래내역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이버 거래시 장애발생에 대한 대처요령도 미리 숙지하여 만일의 경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사이버 거래에서 전산장애시 대처요령?

주식거래를 하면서 HTS(Home Trading Syste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산장애에 대처요령은?

- ▶ 거래지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매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콜센터 전화번호로는 전산장애 시 전화폭주 가능성 있으므로 지점연락처 메모 필요)
- ▶ HTS사용중 장애발생 사실 입증을 위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으며, 계속하여 전산장애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후 회사 민원처리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차원의 대책에 대해 1차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6. 펀드투자(간접투자) 유의점

주식투자를 해 봤는데 시간도 없고 정보가 너무 많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펀드투자를 하고 싶는데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 ▶ 펀드투자는 전문가에 의한 투자, 분산투자, 투자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가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투자성향,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주식형, 채권형, 해외펀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시기 관련, 금융시장 등 제반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위험(원금손실위험, 환위험 등)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 운용회사나 펀드매니저에 따라 운용성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운용사의 과거실적 및 운용전략, 펀드매니저의 운용성향 등도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매사행(갑작스런 자금수요 대비 중도환매 가능성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로, 수시로 기준가격, 손익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7. 펀드 기준가격의 계산 및 적용

펀드에서 기준가격은 어떻게 계산하고, 납입시 또는 환매시 적용 기준가격은?

A

- ▶ 기준가격은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펀드의 1좌당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 기준)

* 기준가격 = 순자산총액(자산 - 부채) / 총 좌수 × 1,000

- ▶ 펀드매수 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 요청일 이후 산정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lind방식).

* 주식 50%이상펀드는 15시(그 외는 17시)를 기준으로 동 기준시점 이전은 (T+1)일의 기준가를, 이후는 (T+2)일의 기준가를 적용

- ▶ 이는 매수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 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 채권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8. 펀드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 펀드투자에 필요한 펀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A

- ▶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사이트(<http://fund.kofia.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 ▶ 펀드수익률, 보수 및 비용, 통계, 법규정보 등 펀드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담아 놓았습니다.

* 사이트 구성 : 핵심펀드정보/ 펀드정보 / 펀드통계/ 법규정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펀드판매사/ 펀드평가사



9. 주식, ETF, 펀드의 비교

주식, 펀드, ETF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주식, ETF, 펀드 비교

구분	주식	ETF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운용목표	고수익	지수실적 추종	지수실적 추종	지수실적 초과
법적성격	지분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결제일	T+2*	T+2	T+3	T+3
위험	시장위험 개별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 개별위험
분산투자	어려움	가능	가능	가능
거래세	매도시 (0.3%)	면제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T+2): 결제일이 체결일(Trade date)로 부터 이를 뒤(영업일 기준)에 이루어짐을 의미

▶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특정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적은 돈으로 추적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종목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준가가 공개됩니다. 또한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매매 가능하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10. ELS 투자 유의점

2016년초 홍콩H지수를 기초상품으로 한 ELS가 한 때 손실 구간(knock-in)에 진입하는 등 손실우려가 있었는데, 향후 ELS투자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 ELS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ELS는 증권사의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므로 발행사의 신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기가 최대 3년(조기상환조건 미실현시)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사용할 자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대표적 금융투자 분쟁관련

Q

11. 포괄적 일임매매 관련

고객은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권사는 포괄적 일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판단은?

A

- ▶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매매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거나, 정기적 거래내역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면 포괄일임 인정가능)
- ▶ 포괄적 일임으로 판단되면 투자결과에 대한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그러나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과당매매)는 증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때 증권사의 배상은 고객의 과실 부분이 참작됩니다.

Q

12. 투자원금 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속의 효력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손실이 나면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A

- ▶ 판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 다만, 직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권유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객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Q

13.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는?

A

▶ 최근 분쟁유형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사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완전판매가 됩니다. 이 불완전판매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 : 투자자에 따른 충분한 설명여부가 중요

- ① 원본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② 원금손실가능성이 우리 국채수준이라는 등 고수익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경우
- ③ 선물환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헤지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특정금전신탁을 가정주부에게 판매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 있고 높은 이자율만 강조한 경우 등

▶ (불인정되는 경우) : 단순나이보다 투자경험 등 실질이 중요

- ① 고령의 나이에 투자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결정시 투자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한 경우
- ② 고령이지만 투자경험이 있고 기초자산구성을 제한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이 있는 경우
- ③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자자료에 그러한 표시가 있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등

III

보험

1. 보험이란?

가. 보험이란?

나.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 보험상품 가입 시 살펴야 할 사항은?

2. 보험 사례별 Q&A

가. 보험가입·유지·관리 관련

나. 보험 보상 관련

다. 기타



1 ↑ 보험이란?

가 보험이란?

- ▶ 세상에는 여러 위험이 있어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보험은 이러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 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 계산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의 자금을 형성한 후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생명·손해·제3보험

- ◎ 생명보험 :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 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망보험, 연금보험 등을 말합니다.
- ◎ 손해보험 :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 ◎ 제3보험 :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장성·저축성보험

- ◎ 보장성 보험 : 보험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 ◎ 저축성 보험 : 위험보장은 물론 저축기능도 포함한 보험입니다.

→ 사회보험·민영보험

- ◎ 사회보험 : 국가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 민영보험 :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 보험상품 가입 시 살펴야 할 사항은?

▶ 청약서 작성시 확인할 사항

- 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만약 보험회사에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사고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전 확인할 사항

- **어떤 보험사고를 보상하는지** : 본인이 보상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얼마인지** : 소득, 지출 규모에 맞게 결정합니다.
- **해지환급금은 얼마인지** :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 **설계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지** : 자필서명 전에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직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맞는지** : 상해보험 등에서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정해지므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

-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약관조항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서 사본 역시 반드시 보관하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2 보험사례별 Q&A

가 보험가입·유지·관리 관련

Q
A

1. 의료비 보상 보험상품 선택

올해 25세인 학생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미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이 알맞은 상품일까요?

-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사별 보험료 수준, 인상률,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담보로만 구성된 순수보장형 상품)이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각 보험사별 보험료 수준, 인상률, 손해율 등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비교 가능합니다.

- ▶ 실손의료보험상품은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하며 재가입 시점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입 계약이 직전계약보다 보장범위·내용이 확대된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A

2. 보험가입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나요?

-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15.11.30일부터 운영하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서 보험회사별·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동 사이트에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에 대해 회사별로 비교·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 장애인 보험가입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장애인이라 가입이 안될거 같아 걱정인데요. 혹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A

-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 만일 보험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등 위험인수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02-730-6363)

* 생명보험협회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02-2262-6699)

Q

4.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평소 잔병치레가 많아 질병, 상해 통원비 보장 목적으로 2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른 실손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좋은 상품 있을까요?

A

- ▶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동일인이 2~3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비의 2~3배가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5. 보험료 할인 예시

30세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중인데 보험료가 비싸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 보험회사는 자동이체할인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단, 보험회사·상품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구분	할인조건	대상보험
자동이체할인	보험료자동이체	보장성보험
고액계약할인	보험료 30만원이상	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	보장성보험
장기유지할인	5년이상 계약유지	연금보험
갱신보험 무사고할인	해당 갱신 보장기간 중 無사고 시	실손, 보장성보험
사망보험 건강체 할인	비흡연,혈압 90~140, BMI* 17~26 만족 시	사망·종신보험
실버암보험 건강체 할인	가입시부터 6개월 이내 당뇨·고혈압이 없을 경우	실버암보험
다자녀 할인	자녀 2명 이상	어린이보험

*BMI = 체중(kg)/키의 제곱(m^2)

Q

6. 보험계약 청약철회 관련

최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불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 계약한지 7일 만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 ▶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청약철회라고 합니다.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와 진단계약(청약 시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Q
A

7.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목적으로 변액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 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 ▶ 변액보험이란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로 펀드(기금)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합니다.
- ▶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되며 투자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지환급금 등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저 보증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 ▶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A

8. 자동차보험 가입

사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커서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고 가입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담보(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와 대물배상 담보(다른 사람의 물건 파손 시 보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중, 대인배상 I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한도) 담보와 대물배상담보(2천만원 한도)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판단하여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9.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

얼마 전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다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남편의 서면 동의절차가 없었는데 괜찮을까요?

A

-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약관에서도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전화로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절차가 없으면 해당계약은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0.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42세 남성입니다. 취미로 암벽등반을 하고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중이라고 말했더니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 ▶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심사하고 해당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를 할 수 있습니다.

Q

11.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최근 회사에서 직무가 사무직에서 생산관리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업무만 달라졌을 뿐인데 이런 사항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A

- ▶ 보험가입 이후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보험료 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기간 중 위험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12. 변액보험 펀드별 수익률

변액보험에 가입한 35세 직장인입니다. 제가 가입한 변액 보험의 펀드별 수익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공시실-상품비교 공시-변액보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펀드별 매일의 기준가격 및 기간별 수익률, 매월말 자산구성 내역,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상품비교공시-변액보험-펀드조건검색-상품검색 메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해당상품에서 운용중인 펀드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 보상 관련

Q

13. 보험금 청구

제가 작년에 운동하다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손보험을 가입 한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도 지금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은 3년에 한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작년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서식), 신분증 사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 등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4. 가지급금 관련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배상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사고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A

- ▶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에 있어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의 50%는 가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지급 가능)
- ▶ 가지급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Q

15. 단체보험 보장 대상

45세 퇴직자입니다. 이전 회사에 재직 시 단체보험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요. 퇴사 후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 ▶ 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지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16.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 우선, 사고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고 시에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 연락처 등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 ▶ 사고 시에는 운전자, 동승자, 목격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분쟁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고 사고 시 활용한다면 사고 당사자 간에 분쟁예방 및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내용원인, 사고약도 기재 가능

Q

17. 부모이혼시 미성년자의 보험금 수령

7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이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많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건가요?

A

- ▶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 부모가 협의 이혼한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Q

18. 해외여행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해외여행에 앞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상해나 도난 사고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유형별 필요조치

상해(질병) 사고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접수 - 사망 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사고 증명 - 공항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 호텔에서 도난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해외여행 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19. 보험가입 조회제도

부모님이 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무슨 보험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십니다.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본인이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모든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내역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은 신분증을 가지고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방문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 시 소정의 서류(대리인 신분증, 인감날인 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면 현장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또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IV

신용카드

1. 신용카드란

가. 신용이란?

나. 신용카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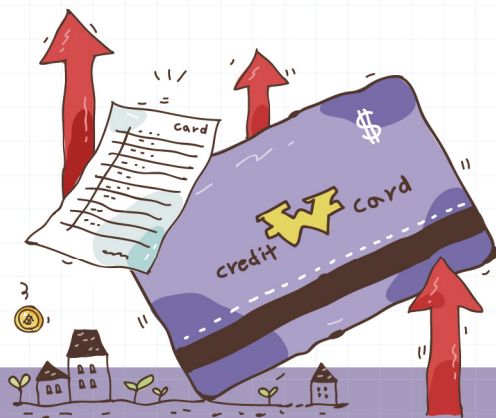
다.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2. 카드 사례별 Q&A

가. 신용카드 발급 관련

나. 신용카드 이용 관련

다.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제도 관련



1 신용카드란?

가 신용이란?

- ▶ 신용(信用, Credit)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 등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 ▶ 그러나 금융 생활에서 신용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신용 있는 사람이란 경제적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개인의 신용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사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란?

- ▶ 신용카드(Credit Card)는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일정기간(신용공여기간) 동안 외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증표로서, 흔히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 또는 “제3의 통화”라고도 불립니다.
- ▶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결된 계좌의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 신용공여기간이 끝나면 카드대금을 납부해야하므로 합리적 소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지의 편리성

위험하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 현금 없이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소비의 평준화

냉장고가 고장났어...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 할부구매를 통해 냉장고 구입 후, 구매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종류 알아보기!

◆ 발급주체에 따른 분류 :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본인카드 및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등이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사용합니다.

◆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분류 :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제이씨비), Union-Pay(은련), Diners(다이너스) 등 국제브랜드사로 발급된 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와 구분하기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카드로 소비자는 카드에 기록된 금액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에 해당합니다.

다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전 부가서비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평균 카드 이용 실적에 비추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 리볼빙 결제 이용시 유의하세요!

- 지금 당장 결제 부담이 적다고 본인의 최종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이월된 미상환 금액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며, 이월 잔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리볼빙 결제 이용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유가 있을 때 리볼빙 이용 잔액을 선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세요

-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 결제시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 따라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사례별 Q&A

가 신용카드 발급 관련

Q

1. 카드발급에 필요한 소득수준 및 서류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

-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2. 채무기록으로 인한 카드발급 거절

과거에 신용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으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A

- ▶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과거 연체 이력 내지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관련법규에 따른 금융회사 의무 보존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3. 미등록 의심 모집인 대응

어떤 사람이 핸드폰매장에서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며 카드 발급 시 핸드폰 매장으로 건 당 5만원씩의 수수료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 ▶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지급, 연회비 면제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는 불법 모집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카드발급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Q

4. 카드사 임의에 의한 갱신발급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유효기한 도래로 신용카드가 자동 갱신 발급되어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발급·거절하는 경우
 - 1) 회원에게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 2) 통보 후 20일 내에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갱신 발급·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 따라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갱신발급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신용카드 이용 관련

Q

5. 카드정보 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 ▶ 「신용카드 개인정보 표준약관」에서는 단기카드대출(현금 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 ▶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처리된 경우에는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항상 보이스피싱, 파밍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하는 한편,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6. 카드 연체로 인한 한도 축소

여러 개 카드 연체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도가 50% 축소되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한도 복원은 안 되나요?

- ▶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회원의 이용 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카드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한도 축소 예정을 미리 알리며,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소득향상·직위상승·신용도등급 향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연체로 인한 교통카드 이용정지

결제일(23일)을 잊고 있다 다음날(24일) 오전에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근할 때에도 교통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반영이 어렵습니다.
- ▶ 따라서 카드사로부터 등록된 연체정보는 이후 해지된다 하더라도 교통회사에 카드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8. 은행 영업시간 이후 결제대금 정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 19시경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은행 영업 시간 이후에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A

- ▶ 은행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및 공휴일에 입금된 금액은 개별 은행의 전산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금작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용대금이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가급적 카드대금은 결제계좌에 은행영업시간(16시) 중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은행 마감시간 이후 입금시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는 별도의 카드사 지출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면 당일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9. 카드결제 시 가맹점의 추가비용 결제 요구

물건 구입 시 현금가에 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20% 할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A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를 하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유선: 02-2011-070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제도

Q

10. 할부 구입의 철회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했는데 다른 곳에서 회원을 인수하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이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 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이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kca.go.kr, 대표전화: 02-3460-3000)



Q

11. 미사용 포인트 소멸

카드 이용 중, 사용하지도 않은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사유와 포인트 복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 ▶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소멸시효로 운영하며 포인트의 소멸시기 도래시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 관련 내용을 6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실효처리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http://www.cardpoint.or.kr>)에서 잔여 포인트 금액 및 소멸 예정일 등을 확인하세요.

Q

12. 특정 카드사의 채무연체로 인한 타사 신용카드정지

다수 카드사의 카드 이용 중 한 카드사의 채무가 연체되자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이용이 정지된 사유와 이용 정지 해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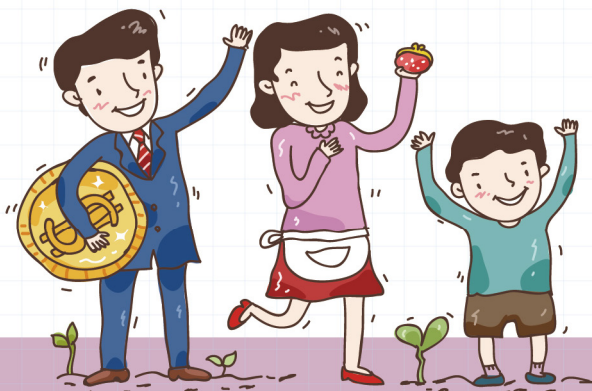
A

-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드립니다.
- ▶ 한편, 회원이 연체 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V

금융용어 풀이

1. 은행
2. 금융투자
3. 보험
4. 신용카드



1 ↑ 은행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시 동 비율을 고려합니다.

$$\text{※ DTI} = (\text{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text{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div \text{연소득}$$

▶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로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차주가 부도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됩니다.

$$\text{※ LTV} = (\text{주택담보대출금액} + \text{선순위채권} + \text{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div \text{담보가치}$$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은행이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으로 수시입출금, 각종 이체 및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릅니다.

▶ 추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

-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자금조달비용, 파생상품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 당좌예금(Checking Deposits)

- 일정한 개설보증금을 납입하고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주가 예금잔액 범위 내 또는 계약에 의한 당좌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동수표 또는 어음 소지인에 대한 현금지급사무를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입니다.

▶ 금전신탁(Money Trust)

-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며, 소비자는 각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마다 미리 정해진 거래방식, 상환방식, 대출한도, 대출기관,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

▶ 공모(公募, public offering) , 사모(私募, private placement)

- 불특정 다수(50인이상)의 자들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을 공모라 하고, 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합니다.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발행인 및 증권발행에 관한사항)를 금융위(금감원)에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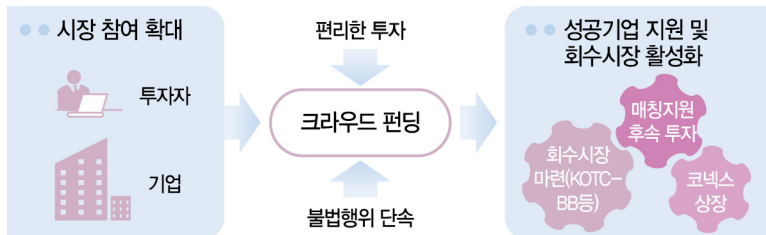
-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널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기업공개와 동시에 발행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기부·후원형, 대출형, 투자형이 있습니다.

구분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1,000만원	2,000만원

*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 무제한



▶ PER, PBR

- PER(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value ratio) :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보다 적으면 주가가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므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vs 펀드(fund)

구 분	랩어카운트	펀드
판 매 수 수 료	없음(단, 서비스수수료 부담)	있음(펀드따라 다름)
환 매 수 수 료	없음	있음
운 용 방 식	계좌별로 운용	펀드매니저 통합운용
맞 춤 형 투 자	투자자성향에 따라 조절가능	투자자의견 반영 어려움
단일종목한도	제한없음	10%이내
목 표 수 익 률	절대수익 추종	벤치마크 추종
취 급 금 용 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 CMA, MMF, RP

-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자산관리계좌의 일종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단기성 상품에 운용하거나 결제자금(자동이체)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급여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 MMF(Money Market Fund)는 투자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주로 단기상품인 CP, 단기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상품입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3 보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 보험 자 : 보험사고 발생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험료·보험금

- 보험료는 보험으로 사고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즉, 가입한 보험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있다면 10만원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손해보험은 일정한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입니다.

▶ 정액보험/실손보험

-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을 약속했던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 등 병원진료비와 관계없이 약속한 금액(진단비 : 3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비례보상

-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 간 보험금액을 나누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 / 종신보험

-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보험을 의미하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한 보험입니다.

▶ CI보험

- 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중대질병보험입니다. 중대질병이란 대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의미합니다.

▶ 연금보험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금액을 적립해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연금 지급시기 이전에는 주로 위험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부분을 보상하고, 나의 인적·물적 피해도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이 외 해당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다쳤을 경우를 담보하는 자기신체사고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 IC 신용카드

- 거래정보 및 암호화 체계가 탑재된 IC칩을 통해 안전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IC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의 IC 카드 리더기(Reader) 부분을 통해 모든 거래를 처리하게 되며, 일부 단말기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 입력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카드

-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대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가 진행되며,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므로 소지가 더욱 간편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기(CD/ATM)를 통해 미리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로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카드 회원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과거 카드 결제 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용실적이 많고 연체가 없을수록 상위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보통 2~24개월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비해 장기입니다.

▶ 카드수수료

- 할부이자율(수수료율)
할부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금액을 분할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이용개월 수와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각각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 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연회비

- 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카드사가 회원 관리비용을 총당 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지만,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용한도

-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로서, 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이용한도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됩니다.

▶ 리볼빙 결제

-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잔여 이용금액이 익월로 이월되어 상환이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때 익월로 이월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VI

기타



1

↑ 유관기관 및 협회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금융위원회	02-2156-8000
금융감독원	1332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국민권익위원회	110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미소금융중앙재단(휴먼예금관리재단)	1600-3500
신협중앙회	042-720-1000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다산콜센터	02-120

2

금융정보 조회 사이트

명칭(웹주소)	내용
보험가입조회 (손해보험 : www.knia.or.kr) (생명보험 : www.klia.or.kr)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 내역 조회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비교 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한 일괄 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cmpl.fss.or.kr)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를 일괄조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청 후 7~20일이후 조회 가능)
페이인포 (www.payinfo.or.kr)	본인명의 자동이체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 및 다른 계좌로 변경
휴면계좌통합조회 (www.sleepmoney.or.kr)	소멸시효 이후 찾아가지 않은 본인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 조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 (cardpoint.or.kr)	본인의 카드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및 소멸 시기를 조회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http://fund.kofia.or.kr)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회사 (금감원, 협회, 운용사, 평가사 등) 에서 제공하는 펀드 관련 정보 연결 사이트

